

“걸리면 큰일난다” 고령층 호흡기 질환 공포 확산

독감 급증에 폐렴 번져 사망자 증가...“무서워 마스크 못 벗겠다” 토로 광주 1월 화장 예약 급증...외출·외박 금지령에 요양원에서 설 나기도

설 연휴 이후 광주·전남 지역 고령층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일교차가 크고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진데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폐렴으로 번지는 사례까지 잇따라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고령층 사이에서 “무서워 마스크를 못 벗겠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 명절 연휴 기간 광주지역 요양병원에서는 소위 외출·외박 금지령까지 내려졌다.

정중순(여·90)씨는 지난 설 연휴에 요양원에서 “웬만하면 외출, 외박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

를 받고,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요양원 내에서 설 명절 연휴를 보냈다. 요양원 측에서 할머니들이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라도 걸리면 큰일이라면서 외출, 외박을 삼가달라고 전해 왔기 때문이다.

정씨는 “설날에 같은 방 5명 할머니 한 명도 안나가고 요양원에 있었다. 괜히 나갔다가 독감 걸려와서 다 옮기면 어쩌나 싶어 걱정됐다”며 “손자가 곧 결혼한다고 예비 손자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같이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혹시 몰라 20분만 회담했다”고 하소연했다.

김옥임(여·75)씨는 최근 외출 때마다 마스크를 꼭 챙기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독감이 유행

해서 가족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기도 했고, 독감에 걸려 크게 아팠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노인들이 독감 한 번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며 “코로나19 때와 똑같다. 미리미리 조심해서 건강을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독감 등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이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지난해 12월 49주차(2-8일) 7.3명, 50주차 13.6명에 머물다가 51주차에 31.3명, 52주차 73.9명, 올해 1월 1주차 99.8명, 2주차 86.1명으로 급증했다.

1월 3주차는 57.7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

(8.6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령층(65세 이상) 의사환자 분율은 12월 51주차 6.3명, 52주차 20.3명, 1월 1주차 35.1명, 2주차 35.2명, 3주차 21.6명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폐렴으로 번져 고령층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화장 예약 건수가 급증했다.

광주시 영락공원에서는 3일장을 기준으로 당일로부터 이틀 뒤 화장을 예약하는 인원을 세어 화장장 여유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이틀 뒤 예약분’이 매일 38-39건에 달하는 등 여유분이 부족한 경우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영락공원의 하루 평균 화장량은 32-33구였던 것에 비해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지난해 25일부터 독감 유행이 회복될 때

까지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늦더라도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고령층은 기침, 고열 등 증세가 없더라도 식욕부진, 기력저하 등 증상을 느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명절 동안 강하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재작년에는 1년 넘게 독감이 유행한 적도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려도 면역체계가 약해 고열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진다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산재 노동자 흡연으로 병세 악화됐다면?

의료진 반복 설명에도 흡연 계속...법원 “손해배상액 감액” 판결

산업재해로 입원한 노동자가 흡연으로 병세를 악화시켰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A(47)씨가 회사와 지게차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손해배상액 4억 43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2억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와 운전자에게 명령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유리 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7월 28일 오전 10시께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지게차 운전자 B씨는 무면허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발목에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 등 74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B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전·후방을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회사는 B씨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해 회사와 B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입원하는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흡연으로 인한 회복지연과 악화가 능성에 대해 설명을 반복해 들었음에도 흡연을 계속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이 작업하는 다른 동료도 후진 경고를 듣고 ‘스톱’이라고 외쳤음에도 A씨 스스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와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덕유산 설천봉 상제루 화재 2일 무주군 덕유산 상제루 설천봉에 있는 관광 휴게시설 상제루 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감식반이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이날 새벽 12시 20분께 발생한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목조 건물인 상제루 정자를 전소시키고 1시간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한밤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광주 유동사거리서 70대 남성 택시에 치여 숨져

광주시 북구 유동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가 건널목을 건너던 중 택시기사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적신호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인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

었으며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두워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호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심야 광주 아파트에서 방화 추정 불

주민 4명 병원 이송...거주자는 다른 아파트서 추락 숨진 채 발견

심야에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서부경찰과 광주서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2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의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아파트 주민 17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불로 한 세대가 완전히 불타 소방서 추산 118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소한 3층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A(68)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직선 거리로 2km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차량 바다 추락 운전자 사망

고흥 거목도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밤 10시 20분께 고흥군 금산면 금진항에서 A(49)씨가 몰던 고급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내부에서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차량에 A씨 외의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근 마을의 주민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지인들은 해경에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